

# 美 초강력 눈폭풍 강타… 항공 1만편 결항·최소 8명 사망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

## 남서부→북동부 이동하며 인구 절반 넘게 영향권 ‘빙판길’ 위험…“도로 나오지 말라” 외출자제 당부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눈 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26일(현지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과 진눈개비, 얼음비에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며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오후 기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주 등에서 100만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

전날 눈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 지역에서 정전 피해가 컸다.

전선이 강추위로 얼어붙은 눈비의 무게와 강풍 때문에 끊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복구까지 며칠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하루만 항공편 1만편 이상이 취소됐고 전날까지 포함하면 주말 새 1만4000건 이상이 결항했다.

1만편은 미국에서 하루에 운항하는 전체 항공편의 4분의 1에 육박하는데 이런 결항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나 볼 수 있었다.

항공편 취소는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지역 공항에 집중됐는데 26일에 예정된 항공

편도 이미 2000편 넘게 취소됐다.

이번 눈폭풍으로 미국 전역에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뉴욕 5명, 텍사스 1명, 루이지애나 2명이며 저체온증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립기상청(NWS)은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30~6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이 “매서운 추위와 위험할 정도의 낮은 체감 온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반 시설 전반에 걸친 피해가 상당 기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눈폭풍에 대해 “역사적 겨울 폭풍”이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폭풍의 경로에 있는 모든 주와 연락을 유지할 것이다”고 적었다.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최소 22개 주와 수도 워싱턴DC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1억8500만명이 눈폭풍 주의보 지역에 있다.

기상청은 “반복적인 결빙으로 도로와 보도가 빙판으로 변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할 것”이라며 이번 눈폭풍의 영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티 뉴 국도안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발 도로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홈페이지를 통해 “34개 주에 걸쳐 2억3000만명 이상 국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트럼프, ‘中 관계개선’ 캐나다 연일 압박

### 중국과 무역 합의에 “캐나다에 재앙… 최악의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인접국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의(무역)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가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꼭 봐야 할 영상”이라며 캐나다 자동차 제조협회 회장의 기자회견 영상도 함께 올렸다.

해당 회견은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골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체석에 대한 관세 인하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그들이 아이스하키만은 건드리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캐나다에서 상징적인 스포츠인 아이스하키까지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통해 중국이 캐나다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